

# 開港期の 釜山 社會相에 관한 資料

## 1. 金田橋太郎의 視察記

金田은 理學士로서 1892年(高宗26年, 明治25年) 7月 30日 日本 居留地會의 用務로 釜山에 들어왔다가 8月末, 釜山에서 陸路로 서울·平壤·元山까지 旅行한 者로서 그 視察記를 東方協會 發行의 「朝鮮叢報」에 다음과 같이 실고 있다.(原文 日文).

### 朝鮮視察의 概要

내가 朝鮮으로 向하기 위해 東京을 출발한 것은 昨年 7月24日로서 歸京한 것은 昨年の 12月半 頃이다. 그간 4個月半, 대개는 旅行하여, 處處에 逗留한 일도 있으나 대개는 每日 步行하는 것을 常事로 했다. 旅行의 路程처음 釜山으로 가서 그 近傍의 山들을 둘러보고 여기에서 20日을 消日했다. 8月 月末, 釜山을 출발하여 京城으로 向했다. 路程은 釜山에서 東萊·梁山·密陽·大邱·尙州·忠州·廣州 등을 거쳐에 京城에 도착할 때까지 그간 25日을 보고 京城에 逗留했다. 9月 下旬 다시 京城을 나와 朝鮮의 舊都인 平壤으로 갔다. 最初에는 平壤에서 더욱 北方으로 進行할 예정이었으나 氣候가 날로 寒冷해지기 때문에 元山으로 갈 수 없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北行은 이를 平壤에서 끝이고, 새로 山路로 橫斷하여 東方의 元山으로 나와 元山の 日本居留地에서 2·3日을 보냈다.

### 東萊府의 狀態

여기에서 東萊府의 形勢를 말하건대, 北쪽에 北山이 있어 高 500尺. 府城은 山の 頂背에서 南쪽 平地로 뻗어 높이 2間 乃至 2間半, 周圍 1里에 未達한다고 하나 築城이 堅牢하다. 四方에 門을 두고 위에는 樓를 架했다. 府廳은 中部에 位置하고 屬舍가 옆을 잇고 왔다. 그 西側에 客舍가 있으며 巨大한 木材와 花崗岩으로써 이것을 建築하여 朱梁碧桶, 우리 神社와 같으나 大半이 荒廢하여 불품이 없다, (이 客舍란 것은 旅館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君主의 位板을 奉安하는 곳으로서 地方官은 朔望마다 여기에 君主의 安寧을 빌고, 重任을 辱되게 하는 恩에 謝한다고 함) 人家는 城의 內外에 連擔하고, 尺數 1千餘, 家屋矮小, 街路狹隘하다. 東南隅에 牛舍가 있으며 土造로서 圓形을 이루고 있다. 그 狀이 파노라마 館과 같으나 적다. (中略)

### 東萊·梁山 沿道の 所見

2日 晴, 午前 6時30分, 溫泉宿을 發하여 北으로 向해 점차 山谷間에 들어가 溪流를 徒涉하기 數回, 谷地가 끝이는 左方 山上에 松林이 鬱茂하다 巨刹 梵魚寺가 숲 속에 있다. 나는 처음부터 여기에 一遊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나 街道에서 멀어지기를 14·5丁 또한 山路險峻, 騎馬가 통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他日로 미루고 前進半里, 沙背峴에 達했다. 峴을 東萊·梁山의 中間에 位置하고 높이 約 130尺, 坂路羊腸, 石齒이 많다. 左右 山脈은 단지 秋草가 龍龍할 뿐 一木도 材로 할수 있는 것이 없다. 더욱 溪流를 건너기를 數次하여 內松·外松(各 3.40戶) 등의 村落을 經과하여 梁山上에 이르렀다. 旅店 金應由의 집에 投宿했다. 때가 午前 10時이다. 東萊에서 여기에 이르는 4里 사이는 山岳이 左右로 連綿하고 村家가 處處에 散點해 있다. 沿道の 一面은 稻田으로서 地味는 中等程度이다. 그리하여 山腹에 이르기까지의 開墾하기 위해 힘들었다.

### 梁山邑의 人口

梁山郡은 人家가 겨우 3百尺許, 居民貧寒. 모두 農事를 짓는다, 東南二面에 높이 9百 乃至 千尺許의 山脈이 있어 南北으로 뻗었다, 中間은 大半이 水田으로서 그 넓이가 約10餘丁, 山脈과 함께 南北으로 뻗어 거리가 約 3리에 達한다, 郡前에는 두개의 小水가 있어 北에서 南으로 并流하며 넓이는 各 2·30間으로 平水는 徒涉할 수 있으나 降雨가 심할 때에는 물이 넘쳐 田地를 害한다고 한다. 朝鮮의 河川은 大小를 論할 것 없이 無數한 空地를 兩岸에 가지고 있어 미리 氾濫의 虞에 供하고 있음으로써 我國의 堤防潰決에 比하면 그 害가 極히 鮮明하다.

## 黃山驛 及 勿禁

午後 零時 10分, 梁山郡을 떠나 西南으로 向해 水田 廣漠한 사이를 가기를 1里 20丁許로 黃山驛에 이르렀다. 驛은 高千餘尺의 山麓이 있어 南面하고 있고 尺數는 近傍을 合해 1,560尺, 家屋, 矮陋, 外形 貧狀을 나타내도 있다.

驛西에는 洛東江이 있어 西北에서 東南流한다. 넓이 4丁 水深 3尋 緩流로서 商船이 往來한다. 그 큰 것은 거이 3百石을 積載한다. 驛南一路는 沿岸에 沿하여 龜浦를 거쳐 釜山港에 達한다. 本道에 比하면 다소가 窄다고 한다. 이로부터 洛東江의 東岸을 따라 길을 西北으로 바꾸어 勿禁洞(60戶)를 지나 院洞川을 건너 3里, 鵲院關에 이른다.

江岸 薄한 곳의 一棧의 細路를 통해 岩稜이 발을 깨물고 左方深淵에 臨하는 石壁이 있어 道路를 橫斷한다. 左方 海岸에서 起하여 右方山上에 達한다. 듣건대 佛國艦隊가 江華島에 來攻했을 때, 韓人이 이 關을 創設하고 不時에 對備했다고 한다. 築造薄弱하여 近今 銳利한 銃砲를 막는데 足하지 않으나 일단 이것을 지키면 萬卒이 進하기 어려운 感이 있다. 여기에서 松旨里(60戶許)를 지나 1里餘하여 三浪津에 달한다.

## 2. 末廣重恭의 視察記

末廣重恭은 漢詩家로서 前記 金田檀太郎보다 좀 뒤늦은 8月24日에 釜山港에 來到하여 하루 동안 滞在한 뒤 元山으로 向했다. 釜山の 여러가지 狀況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記錄하고 있는데 다음은 그의 旅行記「北征錄」의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 釜山港

8月 23日 曉雲 사이로 對馬島를 바라 본다. 海上은 매우 高요하다. 午前 11時 釜山港에 들어왔다. 오른쪽에 半島가 突出하고 左便에 絶影島가 있다. 入口가 매우 狹小하며 그 위에 峭岸 세개가 踰지어 서 있다. 興利島의 名이 있다. 英人은 이것을 「찬널후락구」라고 한다.

港의 内外에 小艇이 出沒하는 것을 본다. 많은 人家가 있어 白壁蒼波가 相映한다. 이것이 곧 居留地이다. 程關 波止場은 居留地 앞에 있다. 汽船 大小 2艘가 碇泊하고 있다. 모두 日章의 國旗를 달고 있으며 하나는 郵船 會社의 臨時船으로 此港으로부터 米穀을 싣고 元山으로 向하러 하고 다른 한척은 神尺·釜山間을 定期航海를 하는 商船會社의 汽船이다. 波止場 內에는 三橋 또는 一橋의 商船과 漁船이 幾10隻인지 알 수 없으며 모두 九州 또는 中國으로 부터 온 것이다. 笠井君과 浮船을 타고 上陸하여 日本 居留地의 旅店 大池에 投宿하다.

### 居留地의 設置

日本居留地는 萬松鬱鬱한 龍頭山을 따라 二面 바다에 대하여 스스로 一廓을 이루고 目下 人口가 5千2百餘라고 한다. 領事館·警察署·郵便電信局·第一銀行支店·總代役所·商法會議所·日本郵船會社·水產會社·小學校 共立病院이 있고 料理집의 큰 것은 曰 京坂亭·曰 西洋亭이고, 料理屋에는 많은 藝妓가 있다고 한다. 市街 清潔하고 家屋의 構造, 市店의 모양까지 조금도 內地와 다름이 없다. 當港은 少數의 支那人을 除外하고는 거기가 日本人다.

### 貿易額과 重要貿易品

昨年(2千年)의 輸入은 1百67萬5千8百48圓, 轉出은 6萬8千106圓이며 日本으로 부터의 輸入은 1百49萬3千169圓이고 그 중요한 것은 生命巾·寒冷紗·量織物·日本綿布·金屬製品·銅·吹簾繩·石油·食鹽·木材等이다 日本에이 輸出은 1百75萬3千9百97圓으로, 주된 것은 米·大豆·綿布·大麥·牛皮·海草等이다. 支那人은 4萬3千3百69圓을 輸入하고 2萬9千3百58圓을 輸出하는데 불과하다. (下略)

### 支那居留地

日本居留地를 나와 草梁에 이르렀다. 即 淸國居留地이다. 人家 2.30에 지나지 않으며 狹少하고 商賣도 별로 盛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理事府(支那 領事館임)이 그간에 屹立하여 壯大하여 눈을 놀라게 한다. 道路에

丘阜가 많고 더하여 紅日이 하늘에 빛이고 西風炎塵을 휘몰아 暑氣를 참기 어렵다. 馬 3匹을 빌리다. 이 근방의 말은 모두 矮小하여 크기가 牛犢과 다르지 않으며 性質도 또한 극히 柔和하다.匹마다 土人이 줄로 끌고 간다.

### 古館方面의 鮮人部落

舊館을 지나다. 곧 以前의 居留地가 있던 곳이다. 지금은 朝鮮人の 聚落이다. 余는 지금까지 朝鮮으로부터 돌아온 者의 말을 듣건대 그 家屋이 더러운 것 言語에 絶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것이 없었는데, 지금 實地로 이것을 보매 참으로 狹小하고 또한 더러운 것에는 틀림없으나 想像하던 것과 같이 심한 것은 아니다. 어느것이나 高가 5.6尺으로 높고 돌로써 壁을 쌓고 茅藁로써 頂을 덮고 一室의 넓이는 대개 2疊 정도의 넓이다. 좁은 집은 3·4室이 있고, 적은 집은 一室에 不過하여 食器, 家具類까지 그 안에 쌓여있다. 이것을 人家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豚舍로 볼 것이다. 公平하게 이것을 評하면 그 村落은 우리나라의 邊鄙에 있는 穢多村(註 白丁村)과 彷彿하다.

그러나 朝鮮은 寒國이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나 방바닥 밑을 파고 煖爐를 만들어 寒中에는 火氣를 통해 溫氣를 取하는 習慣이 있기 때문에 自然히 家屋構造가 狹小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 衣服에 있어서는 家屋과 같이 論할것이 아니다. 余는 海岸에 上陸하여 그 곳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매 모두 白色의 衣裳을 입고 汚穢한 것은 極히 적었다.

居留地를 散步하고 또한 市店에 出入하는 사람은 모두 훌륭한 黑笠을 쓰고 布 또는 寒冷紗로써 만든 衣와 치마를 입고 唐鞋을 신고 긴 烟管을 손에 쥐고 있다. 그 服裝은 極히 古雅하고 또 潔淸하다. 그래서 余는 이것은 반드시 中等 以上の 紳士 또는 商人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村落에 들어가 보면 이들은 汚穢千萬한 家屋안에 앉아 黑笠을 입은 채로 2.3인이 서로 列하여 벽금벽금 담배를 피우면서 偃臥하는 것도 있다 余는 여기에서 그 衣服과 家屋이 一致하지 않는 것에 놀라지 않을수 없다 또한 余가 一見한바에 의하면 目下 炎暑酷烈한 때인데도 勞役者까지 麻製

의 穿袖衣를 입고 赤裡裯한 者は 매우 적어서 清潔한 我國人은 一步를 讓는 處 無 可 有 無 處 矣.

### 釜山城과 一婦女

一里 정도 더 가서 一城門이 있다. 四方이 石壁으로 둘러졌고 그 위에 土牆이 있다. 城內周圍가 20町 정도 되겠다. 이것이 곧 釜山鎮城이다.

汚穢한 民家 사이에 釜石所(戶長役場), 拱辰館(大賓을 迎接하는 곳), 教練所, 別砲軍官廳 등이 있다. 거기가 허물어졌다. 南으로 나르면 正面에 큰 門이 있고, 『海左主鎮衙門』이라는 額을 걸어놓았다. 門前을 지나 左折하면 小山이 있고 樹木鬱蒼하다. 여기도 또한 石壁土牆을 쌓아 여기에 오르면 그 위에 石壘의 遺址가 있다. 石壁은 반쯤 무너지고 頂上은 平坦하여 四方이 一丁 정도 된다. 곧 釜山城으로서 小西行長이 一舉에 陷落한 것이 이거다. (註 小西行長이 攻陷한 것은 이것이 아님) 中央에 一大碑가 있으나 磨滅하여 한 字도 없다. 그 옆에 또 一碑가 있는데 小屋을 세워 이를 보호하고 있다. 이것 역시 글자가 많이 剝落하여 읽을 수 없는 것이 十中八九이나 하나는 釜山子城銘, 하나는 皇朝經理大中丞萬公碑閣重修記이다. 文을 木版에 刻하여 壁上에 걸어놓았다. 長文으로 記錄하지 않았다. 山을 내려와 歸路에 오르니 馬夫가 拱辰館에서 나를 기다린다. 목이 마르므로 門前에 있는 婦人을 불러 冷水를 求하고 韓錢三文을 주니 이를 固謝하여 받지 않는다. 더 물의 代價를 돈으로써 하는 것은 朝鮮에는 없는 일이라고 人心이 質樸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 韓錢의 不便

朝鮮에 와서 가장 不便을 느끼는 것은 韓錢이다. 居留地內에서는 日本貨幣로서도 困찮으나 地方에 나가면 韓錢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의 25圓에 해당하는 韓錢을 運搬하기 위해서는 一匹의 말을 사용해야 한다. 頃日 我國人이 釜山에서 陸路로 京城으로 가려고 했다. 途中에 旅館이 不便하기 때문에 蚊帳, 이불, 蠟燭, 食器, 食品을 運搬하기 위해 많은 말을 要하고 새로 三匹의 말을 借入하여 용돈과 宿泊費로 지불할 韓錢을 길머지을 준비를 했다. 賄賂의 流行은 朝鮮의 名物이며 官吏에게 賂

물을 보내는 者는 이것을 數匹의 말에 싣어 玄關으로 運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또한 一笑할 일이다.

다시 騎馬하여 日沒前 居留地로 돌아왔다. 續續 來客이 있었다. 大阪每日新聞社員 平尾要作氏, 頃日 漢城에서 陸路로 釜山에 왔다. 朝鮮 內地陸路의 困難相을 說明했다. 매우 자세하다. 이날 밤 室田領事를 訪問하여 2時前 一小酌하하고 本船에 돌아왔다. 杉山工學士가 前便으로 이곳에 와서 여러곳을 檢視하고 우리와 같이 浦潮로 가서 길이 內地에 들어 가려고 한다. 또 한사람의 同遊者를 얻은것은 기쁘다. (下略)

### 絶影島와 海軍 貯炭場絶

絶影島는 우리 居留地 앞에 屹立하여 부르면 대답할 것 같다. 土地는 대개가 險峻하지 않고 開墾에 適하다. 또한 居留地에는 하나의 上水를 끌었으나 그 分量이 많지 않다. 그러나 島內에는 處處에 溪流가 있음으로써 軍艦과 汽船은 供給을 이 섬에 바라고 있다. 今秋에는 旱魃로서 居留地의 用水가 말라 하는 수없이 집집의 飲料水까지 이 섬에서 輸送했다.

前年 我政府는 朝鮮政府에 請하여 海岸의 一部分을 借受하여 海軍의 石炭庫로 했으나 그 濟州島 漁業 一件으로 此島에서의 많은 土地를 얻어 魚干場으로 할 것을 要求中이다. 그러나 露國은 前년부터 此島에 注目하여 頻頻히 借受의 評判을 열고 米國도 또한 同様の 請求가 있다고 한다. 이 一件은 我國에 있어서 重要한 事件인바 決코 輕하게 看過해서 안될 일이다 (下略)